# 내 것을 지키는 '환취권'



박 규 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따능 AI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그 회사의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관리 아래 놓인다. 채권자들은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돈을 받을 수 있고, 개별적으로 재산을 가져가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물건 중에 '원래부터 그 회사 것이 아닌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리스회사가 어느 기업에 기계를 빌려줬는데 그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리스회사는 자신의 기계를 그냥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때 등장하는 권리가 바로 환취권(還取權)이다. 환취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제3자의 특정재산이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있을 때, 그 실제 소유자가 재산의 반환이나 인도를 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채무자회생법 제70조는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쉽게 말해, 원래 내 것은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다. 리스회사가 기업에 기계를 빌려줬는데 그 기업이 리스료를 연체했다. 리스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기계 반환을 요구한 경우, 법원은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를 인정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이미 해지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 반환 청구는 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창원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5나115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가단5173353 판결). 반대로 해지 통보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지 통보의 도달 시점이 하루 차이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환취권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리스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스스로 '회생담보권자'로 신고하고 회생계획 인가에 동의해 놓고서, 뒤늦게 환취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또한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는 이른바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법원은 그 유보된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담보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취권이 아닌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한 사건에서, "이용자가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은 특정성이 없는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다"며 환취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9. 선고 2025가단100270 판결).

결국 환취권은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상식을 도산절차에서도 지켜주는 제도다. 다만 그 권리가 진정한 소유권에 기반한 것인지, 절차 과정에서 스스로 포기한 것은 아닌지, 해지 통보 시점이 적법한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내 재산까지 그 회사 빚을 갚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 환취권은 바로 그 원칙을 지키는 법적 장치다.

/법무법인 바른

# 똑똑한 안경의 그늘



기자 수첩
차 현 정
〈산업부〉

안경 하나로 외국어를 번역하고 눈앞의 사물을 검색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AI가 스마트폰을 넘어 착용형 기기로 확장되면서다. 그러나 기술이 편리해질수록 악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과 협업한 AI 안경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공개하고 오는 12월 10일 국내 출시를 예고했다. AI 제미나이를 탑재해 번역과 길 안내, 회의자료 요약 등을 지원한다. 메타 역시 레이밴과 협업한 스마트 안경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됐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15일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한 것이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사례는 아니지만 소형 전자기기와 AI가 결합했을 때의 위험성을 드러냈다.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부터 감독 인력인 'AI 인스펙터'를 투입했다. 지난달 가스기사 실기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채 답안을 작성하던 수험자가 적발됐다.

문제는 AI 안경이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사들은 디자인을 개선해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장점이지만 시험장처럼 사용이 제한되는 공간에서는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조사들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촬영 중 외부 표시등이 켜지고 이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메타도 유사한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장치만으로 모든 오남용을 막기는 어렵다.

관건은 기술 발전에 맞춰 관리 체계도 정비할 수 있느냐다. 산업인력공단은 전파탐지기 도입과 시험장 CCTV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감독 인력만 늘리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기기 확인 절차와 사용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AI 안경 시장은 본격적인 경쟁에 접어들고 있다. 기업들이 성능과 디자인을 개선하는 만큼 기술의 오남용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과 사회가 안심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AI 안경이 일상에 자리 잡으려면 기술의 완성도만큼 신뢰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져야 한다.

/ hyeon@metrose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6일 (음 10월 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길을 가다 필요한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60년생** 평소와는 좀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72년생** 다소 모든 일에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84년생**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49년생** 여행을 계획중이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61년생** 준비를 철저히 해야 실수를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73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85년생** 용기를 내어 추진하세요.

**50년생**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62년생** 능력을 평가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74년생** 오늘 귀하의 행운의 숫자는 9번입니다. **86년생**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51년생**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길합니다. **63년생** 새 친구들을 사귀도록 하세요. **75년생** 많은 사람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87년생** 노력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52년생** 베푸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세요. **64년생** 자신의 고집을 버려야 하는 것이 길합니다. **76년생** 깊이 생각한 뒤 상대를 따른다면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88년생** 저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3년생** 즉각적인 실천이 필수입니다. **65년생** 신중히 나아가야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77년생**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 좌절은 금물입니다. **89년생** 사면초가의 위기입니다.

**54년생**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66년생** 결단성이 필요합니다. **78년생** 윗사람의 도움을 크게 받게 됩니다. **90년생** 계획성이 모자라 위험에 빠집니다.

**55년생** 괴롭지만 고통을 내색하지 마세요. **67년생** 오늘 하루 기쁜 일이 가득합니다. **79년생** 작은 일은 해결되었으나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91년생** 공부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56년생** 유비무환이란 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68년생** 낭비와 사치는 버리세요. **80년생** 매일 매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92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57년생** 금전운이 불리합니다. **69년생** 성실한 자세로 나아가면 더 큰 이득이 보입니다. **81년생** 유흥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93년생** 패배를 인정하고 왜 그런 건지 반성하세요.

**58년생** 오늘은 근신할 때 입니다. **70년생** 지출을 좀 줄이세요. **82년생** 성공과 실패 그 사이에 귀하는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94년생** 옛 것은 다 물리쳐버리고 다시 또 시작하세요.

**59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욱 심합니다. **71년생** 지금 부와 명예의 길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83년생**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95년생** 말조심하고 건강에 신경 쓰세요.



# 김상회의 四季

##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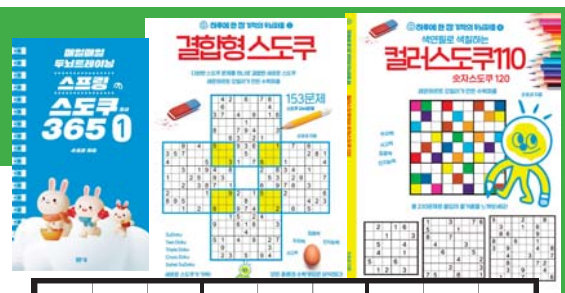
기원과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 기원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기도는 바라는 바인 기원을 이루기 위해 빌게 되는 일련의 마음을 모으는 의식과 행위를 뜻하는 것이리라. 따라서 기도의 방법이나 의식은 다양하게 행해질 수가 있다. 초월자라고 생각되는 어떤 특정 신이나 존재들에게 바라는 바를 계속 구하거나 절을 하거나 경을 읽거나 하면서 간절함이 통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그래서 '지성감천'(至誠感天), 즉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라는 사자성어도 있는 것이며, 이러한 지극정성의 예화도 적잖게 있었다. 보통 정성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지라 기독교나 불교 등 교회나 사찰에서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고 신부나 목사, 스님들이 기도의 주재자로서 역할을 하며 샤머니즘 전통이 강한 나라들은 무속인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초월적 절대자나 신들에게 개인의 소망과 발원을 대리하여 고하는 것이다.

물론 개개인이 각자 집에서 개별 기도 발원을 올리기도 하지만, 기도를 혼자 하면 뭔가 소홀하고 부족해 보이는 생각이 든다. 함께 하는 기도가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인데, 아마도 이는 아주 오랜 옛적부터 하늘의 뜻을 읽고 전하는 이를테면 신으로부터의 감응력이 뛰어난 성스러운 임무를 가진 신탁의 힘을 지닌 인물들이 제사장처럼 신앙적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성립된 탓이기도 하다. 세속적인 인간들이 감히 성스러운 신에게 바로 소원을 구하는 것이 예의에 맞지 않다고 보는 까닭이리라. 그러나 혼자 하는 기도라 해서 힘이 약한 것은 아니다. 우리 선조들, 할머니 어머니들은 가족의 안녕과 복을 위해 장독대에 물 한 그릇 정하게 떠놓고도 빌었고 사계절 주요 절기 때마다도 상달 고사 떡이며 동지팥죽을 쑤어서 터주신이든 서낭당이든 칠성님께든 빌고 또 빌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뼘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 | | | | | | | |
|---|---|---|---|---|---|---|---|---|
| 1 | | 6 | | | 7 | | | 3 |
| | | | | 4 | | 8 | | |
| | 4 | | 9 | | | | | 1 |
| 5 | | | | 9 | | 3 | | |
| | 7 | | 1 | | 2 | | 6 | |
| | | 3 | | 7 | | | | 2 |
| 7 | | | | | 9 | | 5 | |
| | | 2 | | 5 | | | | |
| 9 | | | 2 | | | 6 | | 4 |

| | | | | | | | | |
|---|---|---|---|---|---|---|---|---|
| 2 | 3 | | | | | | | 4 |
| | 8 | | | 9 | | | 1 | 3 |
| | | 9 | | | 8 | 2 | | |
| | | 7 | | 3 | | | | |
| | 5 | | 6 | 4 | 9 | | 8 | |
| | | | | 1 | | 3 | | |
| | | 8 | 4 | | | 6 | | |
| 5 | 7 | | | 8 | | | 4 | |
| 4 | | | | | | | 5 | 8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 행·편 집 인 | 이 장 규 | 편집국장 | 윤 휘 종 |
| 인 쇄 인 | 중앙일보(주) |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35호 | | |
|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39호 |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